“선용품 유통 넘어 조선·에너지·방산 밸류체인 구축 속도”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 명 진 매일마린 회장

부산서 출발한 해양 전문기업
1만여 제품 100여 파트너에 공급
세화기계·SAS·삼양통상 품어

엔진부품·구조물 제작 역량 확대
매일세라켐 통해 스텔스도료 개발
국방·원자력·보안 시장 정조준
글로벌 마린테크 기업 도약 선언

김명진 매일마린 회장이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선박 운행에 꼭 필요한 선용품 유통업에서 시작한 부산의 토종기업 매일마린이 선박엔진 부품·선박 구조물 제작 그리고 에너지·방산까지 넘나들며 글로벌 해양 테크 그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본사가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창원, 진해, 경주까지 ‘사각 편대’도 완성했다.

김명진 매일마린 회장(사진)은 “선용품 유통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조선해양, 에너지, 첨단 소재 기술 분야에 녹여내고 있다”면서 “조선과 방산을 하나로 묶는 통합 밸류체인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 해양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글로벌 마린 테크 자이언트(Global Marine Tech Giant)’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선용품산업협회장과 중소기업경영혁신(메인비즈)협회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출신으로 미국의 AMOCO OIL TANKER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다 1992년 당시 매일마린을 설립했다. 법인으로는 3년후 전환했다.

선용품(Ship Chandler)이란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 달 이상 바다를 누벼야하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식자재와 각종 소모품 등을 말한다.

김 회장은 “최적화한 선용품 공급은 해운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요소로, 매일마린은 4만여 종에 달하는 선용품 가운데 1만여개 물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100여개 파트너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국 주요 항만 24시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동종업계 중에선 장기근속과 전문성이 뛰어난 회사라고 자부하며 이때문에 우리를 ‘선용품사관학교’로도 부르고 있다(미소)”고 전했다.

김 회장은 매일마린 기준 50여명의 임직원과 약 300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바탕으로 사업계열화 완성을 위해 잇따라 기업들을 인수하며 회사를 키워오고 있다.

터보차저 등 선박 핵심 기자재 가공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북 경주의 세화기계(2018년), 조선 및 육·해상 발전 플랜트 제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남 창원의 에스에이에스(SAS), 해운 물류사인 삼양통상(2025년)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한때 국내 최고의 셀 가공 기술을 보유하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던 SAS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주요 해외 고객사의 파산으로 회생절차까지 밟게 돼 매일마린 플랜트 사업부로 합병하게 됐다”면서 “SAS 인수를 통해 현대중공업 특수선 및 군함의 블록, 래싱 브릿지 등 제작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형 구조물 제작,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에 있는 플랜트 사업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화 조선분야 등으로 확장해 글로벌 시장을 추가 공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매일마린 관계사로 첨단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매일세라켐의 성장 가능성에 무엇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매일세라켐은 최근 고성능 경량 방탄 및 보온 불연, 방음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스텔스도료’라고도 불리는 신소재는 기존 소재보다 두께가 얇은 1㎝ 정도만으로도 NIJ 레벨 Ⅲ-A급의 방탄 성능을 유지하며 1100℃의 화재에도 4시간 가량 견딜 수 있는 내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해군 함정, 군용 차량, 원자력 및 보안 시설 등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매일세라켐이 선보일 스텔스도료는 2년 내에 실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부,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생태계 구축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동명대 등 지역 대학 졸업생 적극 채용, 모교인 한국해양대와 일·학습병행사업 참여 등 해양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기업과 사회는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사회적기업이 돼야한다. 이 과정에서 ESG 경영, RE100은 중요하다”면서 “매일마린은 어느덧 5개사를 거느리는 회사가 됐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향후 추가 M&A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텅 빈 운전석, 스스로 판단”… 로보택시 시대 성큼

YG의 CAR TALK 카톡

Pony.AI 로보택시

中 경제기술개발지구서 20㎞ 시승
시장 골목 돌발상황도 매끄럽게 대응
비보호 좌회전·끼어들기 안정 통과

Pony.AI의 자율주행 레벨4 기술을 적용한 아크폭스의 알파 T5 로보택시 차량.

운전자가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운전자 없는 택시’ 로보택시가 더 이상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 현실이 됐다.

한때 잇따른 사고와 과잉 기대 속에서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 서두우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가량 이동해 도착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지구에서 현지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닷에이아이(Pony.AI)가 운영하는 로보택시(아크폭스 알파 T5 차량)에 탑승해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을 체험했다.

차량에 탑승해 뒷좌석 스크린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차량은 스스로 주변 교통 흐름을 읽으며 주행을 시작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옆 차선의 차량의 이동을 읽고 앞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의 속도를 인식해 대응하며 복잡한 도로에서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는 순식간에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자전거,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느긋하게 가로질러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읽고 예상보다 과감하고 정교하게 대응했다. 교차로 대기 후 비보호 좌회전 상황에서도 맞은편 도로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 안전하게 통과했으며 위험을 감지한 순간에는 차량 스스로 크락션을 울렸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레이저 레이더, 밀리미터파 레이더, 카메라, 위성 등 다중센서 데이터를 유입해 차량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뒷좌석에 있는 모니터에서는 차로와 교통신호, 보행자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이 대응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에서도 Pony.AI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로 환경을 빠르게 읽어가며 약 200여㎞ 구간을 안정적으로 주행했다.

이번 시승은 자율주행 업체들이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SDV) 시장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Pony.AI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베이징과 광저우, 한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무인 주행 허가를 취득하며 독보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베이징=양성운 기자 ysw@

벤처기업 AX 혁신지수 48점 AI 의지 높지만 인프라 부족

국내 벤처기업들의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지수가 100점 만점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평균 48점에 그쳤다.

기업들이 AX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구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특히 경영진의 AI 이해도 및 도입 의지는 66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인프라 수준은 29점으로 가장 낮은 등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이같은 내용은 기술보증기금이 437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벤처기업 AX혁신지수 실태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에는 기보가 자체 개발한 AX혁신지수가 활용됐다. AX 단계는 기초→준비→구축→확산→선도로 나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AI 이해도 및 도입 의지(65.8점)와 디지털 인프라 수준(28.8점) 간 점수 차가 컸다. 다수 기업이 AX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실행 기반이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서비스업(58.9점)과 제조업(39.3점) 간 격차도 존재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창업기업이 대규모·비창업기업보다 AX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매출액 10억 이하 기업과 창업 3년 이하 스타트업의 AX 혁신지수는 각각 55.4점, 54.5점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액 50억 초과 기업(39.5점)과 창업 후 7년을 초과한 기업(44.5점)보다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53.5점)과 동남권(53.1점)이 수도권(48.8점)보다 고득점을 획득했는데 이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점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승호 기자

中企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아진다

전국조합 발기인 50명→30명
지방조합 30명→20명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신산업·지역 주력산업 분야 협업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 설립 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바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혼자 추진하기 힘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에 맞춘 협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업종 내 기업 수가 적은 신산업 분야와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으로도 세울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김승호 기자

탄소규제 대응 수출 中企 R&D 지원 착수

중기부, 내달 13~27일 참여기업 모집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D 사업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기업 핵심 품목(철강·알루미늄)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탄소감축 기술의 개발·확보와 수출 중소기업 현장 실증 등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공급할 중소기업 ▲개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출 중소기업(2개사 이상) ▲대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세부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현장에서 탄소감축 수요가 높은 3대 중점 기술분야(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에서 26개 지정과제(RFP)를 공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